

이자율 하락 문진기금에도 불똥

기금 수익 예상보다 5700만원 줄어

이광재 jajuy@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01-27

경기불황의 불똥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에도 튀고 있다. 은행권의 이자율 하락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위한 광주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익도 함께 줄었기 때문.

27일 광주문진위에 따르면, 최근 2009년도 문진기금지원 신청 대상자에 대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203건, 3억 8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지난 연말 공고 당시보다 5700만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당초 문진위는 2009년도 기금 사용예산 5억500만원 가운데 특별지원금(2000만원)과 운영 및 모니터링비(4000만원)를 제외한 4억4500만원을 기금 신청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2억 8000만원)과 광주문진위의 기금 47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의 일부(70%)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은행권 이자율이 요동치면서 문진위 기금의 이자수익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 문진기금 이자수익은 지난해의 경우 7.3%를 적용받았다가, 최근 기금을 맡길 은행과 실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은 4.6%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문진기금 47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은 지난 연말 전망치 3억550만원보다 8930만원이나 적은 2억16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http://www.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